

<표 251> 읍·면별 농업 진흥지역 지정 현황

(단위: ha)

연별 및 읍면별	합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013	1,886.6	1,687.9	198.7
2014	1,885.9	1,687.2	198.7
2015	1,885.9	1,687.2	198.7
2016	1,884.8	1,570.0	314.8
2017	1,854.8	1,528.3	326.5
울진읍	167.2	155.3	11.9
평해읍	444.5	401.9	42.6
북면	130.6	54.5	76.1
금강송면	-	-	-
근남면	336.3	296.8	39.5
매화면	307.7	196.4	111.3
기성면	283.1	243.5	39.6
온정면	159.3	155.4	3.9
죽변면	26.1	24.5	1.6
후포면	-	-	-

출처: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울진군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적으로 1,854.8ha의 면적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이 1,528.3ha, 농업보호구역이 326.5ha이었다. 특히 농경지의 면적이 넓은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및 기성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답작지 보다 전작지역이 많은 북면은 농업진흥구역보다 농업보호구역의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삼림지역이 대부분인 금강송면과 어업지역인 후포면에서는 거의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거의 지정되지 않았다.

제2절 농가인구와 농경지

1. 연도별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우리나라의 전체 농가인구는 1968년에 1,600만 명에 달하였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공업중심의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되는 이농현상이

1970년대 초부터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농촌의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현상이 심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에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업부문과 수출정책의 중심으로 이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농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농산물에 대해 낮은 가격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사이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또 농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낙후됨으로써 도시의 비 농업부문에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노동력의 감소, 농촌인구의 노령화, 여성화로 농사철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농업생산 일정을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게 되었다.

다음은 1970년 이래 우리나라의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류한 표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년 누계일수 30일 이상 농사일 이외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전업농가, “년 누계일수 30일 이상 농사 이외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서 농업소득이 농외소득 보다 많은 농가”를 1종 겸업농가, “년 누계일수 30일 이상 농사이외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서 농업소득이 농외소득 보다 적은 농가”를 2종 겸업농가로 분류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표 252>, <표 253>과 같다.

<표 252> 연도별 농가호수의 변화

(단위 : 가구)

연별	합계	전업	겸업		
			소계	1종겸업	2종겸업
1970	13,839	10,608	3,231	1,919	1,312
1974	11,410	8,919	2,491	790	1,701
1979	10,990	8,292	2,698	1,103	1,595
1990	8,470	3,355	5,115	3,340	1,775
1996	7,051	1,555	5,496	2,443	3,053
2000	6,265	4,154	2,111	757	1,354
2005	5,263	3,400	1,863	592	1,217
2010	4,697	2,441	2,256	680	1,576
2013	4,674	2,132	2,542	-	-
2014	4,594	2,127	2,467	-	-
2015	4,242	2,193	2,049	652	1,397
2016	4,263	2,675	1,588	-	-
2017	4,416	2,784	1,631	-	-

*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표 253> 연도별 농가인구의 변화

(단위 : 명)

연별	합계	남	여
1970	81,049	-	-
1974	62,777	-	-
1981	51,103	-	-
1990	29,043	-	-
1995	20,304	-	-
2000	16,039	7,676	8,356
2005	12,456	5,910	6,546
2010	10,776	4,957	5,819
2014	10,445	4,826	5,619
2015	9,008	4,343	4,665
2016	8,942	4,123	4,819
2017	9,085	4,134	4,951

*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출처 : 통계청, 『농업총조사 보고서』;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울진군의 농가호수는 1970년 13,839가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416가구로 1970년에 비해 3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농현상으로 농가의 비교적 젊은 인력이 도시로 나가고 농가마다 노인들만 농사일을 경영하며, 울진군으로의 귀농·귀촌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감소비율을 비교해 보면 1970년에 비해 2017년의 전업농가는 26.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겸업농가는 50.5% 수준으로 감소하여 전업농가의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가소득만으로는 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농가호수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농가인구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 81,049명에서 2017년 9,085명으로 감소하여 11.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노인인구로 이루어진 농가에서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긴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농경지

1) 경지면적

1960년 이래 울진군의 연도별 논과 밭의 면적, 그리고 가구당 경지면적의 변화추이를 조

사한 결과는 <표 254>와 같다.

<표 254> 연도별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 ha)

연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1960	8,050	4,253	3,796	-	-	-
1965	9,061	4,625	4,435	0.65	0.33	0.32
1970	9,294	4,581	4,713	0.67	0.33	0.34
1975	9,278	4,839	4,439	0.79	0.41	0.38
1980	8,696	4,715	3,981	0.83	0.45	0.38
1985	8,227	4,581	3,646	-	-	-
1990	8,026	4,642	3,384	0.95	0.55	0.40
1995	6,752	3,970	2,782	0.93	0.55	0.38
2000	6,401	3,930	2,471	-	-	-
2005	6,846	4,022	2,824	-	-	-
2010	5,474	3,280	2,194	-	-	-
2013	5,492	3,558	1,934	1.18	0.76	0.41
2014	5,487	3,558	1,929	1.19	0.77	0.42
2015	5,442	3,445	1,997	1.28	0.81	0.47
2016	4,957	3,177	1,780	1.16	0.75	0.42
2017	4,868	3,043	1,824	1.10	0.69	0.41

* 수치는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61~2017)

울진군의 연도별 총 경지면적의 변동추이는 1970년에 9,294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868ha로 1970년의 52.4%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논과 밭의 경지면적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 논과 밭 모두 1970년에 비해 2017년의 경지면적이 66.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에서 논의 비율은 1960년 52.8%에서 2017년 62.5%로 증가한 반면 밭의 비율은 1960년 47.2%에서 37.5%로 감소하여 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당 경지면적은 70년 0.67ha로서 80년 0.83ha, 90년에는 0.95ha, 2015년 1.28ha로 계속 증가하였다. 경북 및 전국의 농가 당 평균 경지면적이 70년에 각각 0.92ha, 0.86ha이었으며, 80년에는 0.96ha, 1.02ha, 90년에는 1.12ha, 1.19ha를 나타내어 울진군의 농가 당 경지면적은 경북 및 전국 평균치 보다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60년 이후 2000년대까지 울진군 및 경북, 전국의 경지면적은 계속하여 감소하였지만 농가 당 경지면적은 꾸준히 증가한 현상

은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시설농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근교의 경북 성주군, 고령군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미미하지만 도시근로자들의 귀농(歸農)현상으로 경지면적의 감소율도 적고, 농업인구의 증가, 농가당 경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2) 경지정리 및 수리답

영농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력의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영농이 보급되기 위하여 경작지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경지정리 시책을 추진한 결과, 1995년 이후 경지정리대상면적, 경지정리율, 수리안전답 등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255>와 같다.

<표 255> 수리답 및 경지정리 현황

(단위 : ha, %)

연별	면적		수리답수율	경지정리대상면적	경지정리율
	수리안전답	기타수리답			
1995	1,757.7	2,212.3	44.3	1,611	75.2
2000	2,095.5	1,749.5	54.5	1,933	71.4
2005	2,110.0	1,705.0	54.8	1,582	93.0
2010	1,455	2,062	68.0	1,593	77.3
2013	1,683	1,592	71.0	1,593	77.3
2014	1,683	1,592	71.0	1,593	77.3
2015	1,683	1,592	71.0	1,593	77.3
2016	1,683	1,592	71.0	1,593	77.3
2017	1,683	1,592	71.0	1,593	77.3

* ‘수리불안전답’→‘기타수리답’으로 명칭변경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96~2018)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995년 1,611ha에서 2000년 1,933ha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1,593ha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지정리 비율은 2005년 93.0%까지 높아졌으나 2010년 이후 77.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지정리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울진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평지보다 산간지의 비율이 높으며, 소규모 농지로 인해 경지정리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낮은 경지정리 면적비율은 재배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을 정착시키기에 어려운 지형을 가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경지정리 대상면적과 경지정리율은 매년 줄어드는 농업노동력과 기계화 영농의 추진을 위해 경지

정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된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수리안전답의 비율도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수리안전답 비율은 51.4%이고 기타 수리답[수리불안전답]의 비율은 48.6%에 이르고 있다. 높은 수리불안전답의 비율은 불안정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농업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꾸준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3)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

<표 256> 연도별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보유현황

(단위 : 개소, ha)

연별	관정보유현황									
	합계		소형		암반		충적		우물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1	-	-	-	-	-	-	-	-	-	-
1992	-	-	-	-	-	-	-	-	-	-
1993	24	6.8	24	6.8	-	-	-	-	-	-
1994	62	110.7	45	12.7	17	98	17	98	-	-
1995	121	83.9	99	27.9	22	56	22	56	-	-
1996	1,038	881.2	826	237.3	53	291	130	254.8	29	98.1
1997	1,075	942.9	855	245.0	61	345	130	254.8	29	98.1

연별	양수장비 보유현황					
	양수기(대)			송수호스(km)		
	계	관수	민수	계	관수	민수
1991	1,733	5	1,728	-	-	-
1992	1,631	5	1,626	-	-	-
1993	1,518	5	1,513	-	-	-
1994	1,688	5	1,683	193	-	193
1995	1,866	53	1,813	102	-	102
1996	1,884	241	1,643	149	33	116
1997	1,909	241	1,668	212	33	179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92~1998)

답작물(荳作物)뿐만 아니라 전작물(田作物)의 경우에도 생육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정을 설치하고 있다. <표 256>은 연도별 농업용 관정과 양수 장비의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농업용 관정은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리시설로서 199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24개소에서 소형으로 설치되어, 1994년 62개소, 1995년 121개소, 1996년에는 1,038개소가 설치되어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관정의 규모는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관정의 형태별로는 충적형이 1996년에 130개소, 암반형이 53개소, 우물형이 29개소로서 주로 충적지대에 설치된 농업용 관정이 설치되었다.

양수장비는 1991년에 1,733대에서 1996년 1,884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양수기는 대부분이 민간 소유의 양수기이었으나, 1996년에는 관 소유의 양수기는 관수 241대, 민수 1,643대를 보유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관 소유의 양수기가 보급되었다. 송수용 호스의 보유상황도 1994년부터 보급되어 1996년에 관수용 33km, 민수용 116km가 보급되어 관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가 경작지까지 이동되는데 이용되었다.

1995년 이후 울진군의 수리시설 현황은 <표 257>과 같다. 수리시설에 이용하는 저수지의 수는 감소한 반면 양수장 수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입보 수도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울진군 농업에서 아직 수리안전담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자연적 수리시설에서 기계화된 수리 방법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7> 수리시설 현황

(단위 : ha)

연별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취입보
1995	20	28	15	90
2000	19	32	13	96
2005	20	41	13	93
2010	14	46	10	93
2013	14	46	10	93
2014	14	46	10	93
2015	14	46	10	93
2016	14	46	10	93
2017	14	49	10	94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96~2018)